



KOSPI200 정기변경 Quick Screen

1. KOSPI200 정기변경 GICS 개편의 변수

- KOSPI200 지수 정기변경은 6/8(목)에 리밸런싱. 편출입 종목은 5월 중하순 발표. 4월말까지의 시가총액,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결정.
- 이번 정기변경의 변수는 GICS 산업군 변경이 될 것. 종목 선정이 1차 산업군 선정을 거치므로 편출입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사안.
- 다만, 국내 종목 변경(22종목)의 경우, 카카오페이, 효성 ITX 등이 산업군 변경되어 산업군 변경 영향이 적을 것으로 판단.

주요 종목 GICS 산업군 변경

종목	업종	업종
KTcs	사무 서비스 & 사무용	데이터 처리 및 아웃소싱
롯데렌탈	육상 운송회사	여객 육상 운송
쓰카		
SK 렌터카		
현대홈쇼핑	인터넷 & 다이렉트 마케팅	대규모 소매업
롯데쇼핑	백화점	대규모 소매업
신세계		
현대백화점		
카카오페이	데이터 처리 & 아웃소싱	거래 및 결제 처리 서비스
효성 ITX	데이터 처리 & 아웃소싱	데이터 처리 및 아웃소싱
한국토지신탁	다양한 부동산 활동	다각화된 부동산 활동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KOSPI200 정기변경 예상, 유동비율 조정 종목에 주목

- 편입 후보군은 금양, 코스모화학의 편입 가능성을 'High'로 제시. 울촌화학은 Pi첨단소재와의 경합 우위가 확인 필요. 편입 의견은 'Mid'.
- 편출 종목은 화승엔터프라이즈, 케이카의 가능성을 'High'로 제시. 보령은 울촌화학 등 편입 전제 하에서 편출될 것.
- 편입 종목의 인덱스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 유동비율 상향조정 종목에 주목 필요.

KOSPI200 종목 편출입 예상

편입종목	순매수 예상	편출종목	순매도 예상
금양	845	화승엔터프라이즈	-91
코스모화학	620	케이카	-97
울촌화학	239	보령	-136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KOSPI200 정기변경, GICS 개편의 변수

상반기 KOSPI200 지수 정기변경의 리밸런싱은 6/8(목)에 진행된다. 대상 종목은 5월 중하순에 발표되지만, 종목 편출입은 4월말까지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번 정기변경의 변수는 GICS 산업군 변경이 될 것이다. 최근 S&P와 MSCI는 GICS 분류체계 개정을 발표했다. 개편 협의가 진행된 2년 전부터 1) 카카오페이 등의 지급결제 서비스 회사의 구조적 성장과 2) COVID-19 관련 소매/유통 영역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이 주요 배경이다.

KOSPI200 정기변경의 종목 선정은 GICS 산업군별 1차 선정을 거치기 때문에, 산업군 분류 변경으로 종목 편출입의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수정된 국내 종목의 GICS 변경(22종목)을 보면, 기존 산업군 기준의 종목 편출입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된다.

GICS 개편도 산업군 변경 여부가 중요한데, 카카오페이가 '정보기술→금융'으로 효성 ITX가 '정보기술→산업재'로 변경 밖에 없었고, 이외 종목은 세부 업종체계의 개편이 있었다.

[표1] 주요 종목 GICS 산업군 변경

Code	종목	변경 전		변경 후	
		산업군	업종	산업군	업종
A058850	KTcs	산업재	사무 서비스 & 사무용	산업재	데이터 처리 및 아웃소싱
A089860	롯데렌탈	산업재	육상 운송회사	산업재	여객 육상 운송
A403550	쏘카				
A068400	SK 렌터카				
A057050	현대홈쇼핑	자유소비재	인터넷 & 다이렉트 마케팅	자유소비재	대규모 소매업
A023530	롯데쇼핑	자유소비재	백화점	자유소비재	대규모 소매업
A004170	신세계				
A069960	현대백화점				
A377300	카카오페이	정보기술	데이터 처리 & 아웃소싱	금융	거래 및 결제 처리 서비스
A094280	효성 ITX	정보기술	데이터 처리 & 아웃소싱	산업재	데이터 처리 및 아웃소싱
A034830	한국토지신탁	부동산	다양한 부동산 활동	부동산	다각화된 부동산 활동

추가적인 산업군 분류 수정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사기준일(4월말)까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다만, 이번 GICS 변경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정보기술로 분류된 지급결제 서비스의 금융, 산업재 등으로의 변경인데, 정보기술 산업군과 금융 산업군의 기존 종목의 시가총액 수준이 높기 때문에 결과를 크게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

2. KOSPI200 정기변경 예상

이번 상반기 정기변경에서 주요 편입 후보군은 3종목으로 판단한다. 이 중 금양과 코스모화학의 편입 가능성을 'High'로 제시한다.

울촌화학의 편입 가능성은 'Mid'로 제시한다. 3월초만 해도 동사의 편입 가능성은 높은 편이었지만, 최근 주가하락으로 편입 허들의 경계에 걸쳐 있다. 동사가 편입되기 위해서는 경합종목인 PI첨단소재의 시가총액을 상회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표2] KOSPI200 정기변경 편입 예상

Code	종목	산업군	평균 거래대금	시가총액	비중	순매수 예상	거래대금 대비	시총대비	1M 수익률	3M 수익률	가능성
A001570	금양	소재	2,873	28,299	0.14	845	0.29	2.99	57.0	94.2	High
A005420	코스모화학	소재	1,483	15,124	0.11	620	0.42	4.10	13.7	92.0	High
A008730	울촌화학	소재	48	9,734	0.04	239	4.99	2.46	-16.5	15.1	Mid

KOSPI200의 지수 구성종목 수를 충족하기 위해 동수인 2~3종목이 편출될 것이다. 이 중 화승엔터프라이즈, 케이카의 편출 가능성을 'High'로 제시한다.

보령은 울촌화학 등 3번째 종목이 편입된다는 전제 하에서 편출될 수 있다. 편입 가능성은 'Mid'로 제시하지만, 편출 리스크가 존재하는 종목은 선제적인 비중축소가 합리적으로 생각된다.

[표3] 편출 종목 예상

Code	종목	산업군	평균 거래대금	시가총액	비중	순매수 예상	거래대금 대비	시총대비	1M 수익률	3M 수익률	가능성
A241590	화승엔터프라이즈	자유소비재	17	5,150	-0.02	-91	-5.21	-1.77	-12.3	-6.8	High
A381970	케이카	자유소비재	28	5,867	-0.02	-97	-3.44	-1.65	-4.2	-11.6	High
A003850	보령	건강관리	19	5,749	-0.02	-136	-6.97	-2.36	-9.2	-20.7	Mid

3. 유동비율 조정 종목에 주목

이번 정기변경에서 편입 후보군 종목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00% 수준에 가깝고, 높은 거래대금 수준을 감안하면 인덱스 효과의 유효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종목 편입군에 대한 접근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동비율 변경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과의 주식이전, 교환만 본다면 당사 추정 자금 기준 +1,381억원의 매수수요가 발생한다.

다만, 동사는 전주 자사주 신탁계약 체결을 발표했다. 주주환원 외에도 사의 합병으로 낮아진 최대주주 지분율을 자사주 매입, 소각을 거쳐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경우, 관련 유동비율은 -7%p~-5%p 수준 감소할 수 있지만, +32%p의 유동비율 상승에는 미약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삼성에스디에스는 +309억원 유입을 예상하지만, 전제는 이서현 부사장의 지분 매도에 있다. 작년 지분 처분과 최근 신탁계약 체결을 감안하면 가능성을 높게 본다. 오버행 출회 시, 동사의 낙폭 과대 측면과 KOSPI200 유동비율 상향조정 반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4] 유동비율 변경 예상

Code	종목	평균 거래대금	시가총액	유동비율 증감	비중	순매수 예상	거래대금 대비	시총대비
A138040	메리츠금융지주	335	73,967	+32	0.38	1,381	4.12	1.87
A018260	삼성에스디에스	117	92,002	+6	0.45	309	2.65	0.34
A008930	한미사이언스	113	26,479	+9	0.11	137	1.21	0.52
A010140	삼성중공업	238	43,296	+5	0.32	116	0.49	0.27
A007310	오뚜기	16	17,414	+8	0.08	79	5.03	0.46
A005300	롯데칠성	36	14,596	+5	0.06	41	1.14	0.28
A047050	포스코인터내셔널	170	36,416	-11	0.09	-240	-1.41	-0.66